

HERMAN KOLGEN
LIFEFORM

APPERCEPTIONAL

GLIMPSE:

TRÄUMATISED

CONVENTIONS

PARÄDISE ÄRT

SPACE

TANGIBLE,
INTANGIBLE

SHOHEI FUJIMOTO

✕ KYOKA

Apperceptonal Glimpse: Traumatished Conventions
Paradise Art Space
30th October, 2020

Artists	Herman Kolgen Shohei Fujimoto, KYOKA
Main Producer and Curator	Jay Bang Paradise Art Space
Artbook Director and Assistant Curator	Hailey Song Paradise Art Space
Curatorial Advisor and Moderator	DooEun Choi Hyundai Art Lab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Manager	Amy Shin
General Manager	Eric Jun Paradise Art Space
Congratulatory Remarks	Michael Danagher Ambassador of Canada
Expert Panel	Deoksun Park MMCA, Korea
Exhibition Designer	Jungeun Kim NIA Company
Interpreter	Hyosun Kim
Photographer	Daechul Jung
Model	Minkyu Kim
Makeup Artist	Kyungduk Park
Stage Manager	Cleave Cha
Venue Provision	CHROMA Paradise City
Technical Settings	C2 Artechnology Inc.
Live Broadcaster	Seoul Community Radio
Video Editing	JÚBILO
Artbook Visual Designer	hongbaksa
Printing and binding	Top Process
Edition	200

© 2020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이 도록의 저작권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허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의 일부를
 전자적, 기계적, 복제적, 기록적 방법으로 복사,
 전송 및 배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합니다.

© 2020 Paradise Art Space.
 All copy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목차

6	서문
8	큐레이터 노트 방재훈
16	아트북 디렉터 노트 송지원
22	허만 콜겐 작품 소개 작가 소개 작가 노트 LifeFORM
84	쇼헤이 후지모토, 쿄카 작품 소개 작가 소개 작가 노트 TANGIBLE, INTANGIBLE

Contents

Foreword
Curatorial Note Jay Bang
Artbook Director's Note Hailey Song
Herman Kolgen Artwork Profile Artist's Biography Artist Note <i>LifeFORM</i>
Shohei Fujimoto, KYOKA Artwork Profile Artist's Biography Artist Note <i>TANGIBLE, INTANGIBLE</i>

복합전시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는 10월 30일 아트테인먼트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 ‘크로마CHROMA’ 에서 코로나19를 직면한 세계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인류를 융합예술로 통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의 자체 기획에서 출발하여 커미션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오디오시네마틱 예술Audiocinematic Art의 창시자인 허만 콜겐Herman Kolgen, 미디어 아티스트 쇼헤이 후지모토Shohei Fujimoto 그리고 사운드 아티스트 코카Kyoka가 참가하였다. 특히 금번 프로그램을 위해 신규 제작된 콜겐의 <LifeFORM>은 공유가치를 인정받아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일렉트라Elektra의 대표작으로 선정되었다. <LifeFORM>의 국내 선공개에 이어 쇼헤이와 코카의 팬데믹으로 형성된 범지구적 유대 관계를 표상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TANGIBLE, INTANGIBLE>이 클럽 크로마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30년 이상 미디어 아트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콜겐은 이미지와 사운드의 상관관계를 주제로로 작업해왔다. 영토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해온 그는 퀴츠QWARTZ부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까지 여러 세계 유수 행사에서 수상한 바 있다.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인 쇼헤이 후지모토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관계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왔다. 작가는 이번 공연에서 수많은 가시적 선인 레이저를 활용하여 가상의 구조물을 형상화해 낯선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코카가 베를린에서 원격으로 퍼포먼스에 참여하여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경험을 담은 사운드를 연주하였다.

내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계획 중인 콜겐의 <LifeFORM>은 팬데믹을 통해 인류가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진화해 온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다뤘다. 쇼헤이와 코카의 공동 작업인 <TANGIBLE, INTANGIBLE>은 인류문명 내부의 주관적 시선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접근법을 붉은색 레이저의 신경망적 연결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는 팬데믹을 겪는 인류의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 세태를 예술과 기술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하여 이를 풀어 나가야 할 인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PARADISE ART SPACE is pleased to host the media art program *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 at the standalone mega-scale club CHROMA on 30th October. This event marked its inception with Paradise Art Space’s curatorial plan and pivoted into a commission project dedicated to offer a comprehensive insight into humanity undergoing COVID-19 crisis through the lens of media art.

Headlined by artist Herman Kolgen who is a linchpin of audiocinematic art, trailblazing Japanese media artist Shohei Fujimoto and pioneering sound artist Kyoka also showcase their novel works. In particular, Kolgen’s newly created work *LifeFORM* is selected as one of the primary works of ELEKTRA Montreal 2020 in recognition of its aesthetic value and social message as well. Following the world’s first premier of *LifeFORM*, collaborative live performance *TANGIBLE, INTANGIBLE* by Shohei and Kyoka that highlights the global solidarity formed by the pandemic takes its stage as well.

Herman Kolgen, a prominent multidisciplinary artist with more than three decades of experience in media arts, has been working on the crosscutting of different media, technical language and a singular aesthetic. His artistic interest lies in the dynamic interrelation between human life and the surrounding nature, which are deeply acknowledged and appreciated in a number of world class art platforms including Ars Electronica and QWARTZ.

Shohei Fujimoto has explored the delicacy of life and visualise its mimesis through media art. In the performance, he presents an unfamiliar sense of space by creating virtual structure made of numerous red laser beams while Kyoka participates remotely and plays a sound that provokes and resonates with people’s memories, emotions and consciousness.

Kolgen’s *LifeFORM* evokes the topological position of human beings as an ‘in-between’ substance and realistically illustrate the inevitability of metamorphic evolution of ourselves. *TANGIBLE, INTANGIBLE* by Shohei and Kyoka i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human society’s collective adaption to the pandemic that materialised with neural-like laser beam composition.

The curatorial foundation of this programme fall into the advocacy of eclectic approach towards the reality we are experiencing: putting the issue into the prism of art and technology thereby providing fundamental perspective to our society that destined to take forward.

<div><div></div>방재훈 책임 큐레이터</div>	<div><div></div>‘정부 공식성명: 영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시작’</div>
<div><div></div>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div>	<div><div></div>2020년 3월 9일 저녁, 출장 일정을 마치고 들른 런던 시내 한 펍에서 집어든 이브닝 스탠다드 타블로이드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헤드라인이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는 동아시아 지역에 한해 창궐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은 허둥대며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심상치 않다는 징후는 조금씩 관찰되고 있었지만,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은 지역성 전염병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기에 나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이유로 야심차게 진행중이던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해하고 있었다.</div>

그러나 곧 이 바이러스는 팬데믹이라는 낯선 개념을 타고 전 지구를 덮쳤고, 자고 일어나면 인기 힘들 정도의 공포와 좌절을 주는 뉴스가 해일처럼 들이닥쳤다. 나의 건강과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던 북미와 유럽, 일본의 아티스트들과 예술플랫폼들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프로젝트의 취소공지와 임시폐쇄 소식으로 줄줄이 내 메일함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한국에 있던 나는 실망감과 무력감을 표현하는 사치를 부리는 대신 그들을 위로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회신을 보내는 선택지밖에 가질 수 없었다.

그렇기에 본 프로그램의 기획은 문자 그대로 저장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톤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로부터 오는 불안과 좌절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며 해소하려는 일종의 본능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픈 이야기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기는 인간의 생명을 잠식하는 생물학적 위협으로서 코로나19라는 태풍의 원초적인 중심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쇼크,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는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 혼란, 백신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더 많은 자동차와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가속화 역시 코로나19 태풍의 눈을 둘러싼 수없는 비바람과 폭풍이 되어 현대사회의 시스템과 질서를 엄습하였다.

미디어 아트를 다루는 기획자로서, 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 공포와 절망만을 표출하는 대신, 이를 새로운 창작의 원료로 삼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의미있는 화두를 던지고자 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Understanding’가 아닌 ‘자각Perception’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미 완성도 높은 영상과 이미지로 무장한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들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 또 하나의 프레임과 논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아트의 매체적 실험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개개인이 자신이 가진 인식의 창을 통해 작품과 깊이 공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창작과 기획에 있어 중용의 미학을 추구하였다. 창작 측면에서 자칫 지나치게 주제와 관련한 기술적 탁월성이나 지적 실험성에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면서도 피상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접근 역시 경계함으로써 ‘최고의 작품’ 이 아닌 ‘최적의 작품’을 그 예술적 목표로 삼았다. 셋째, 연출에 있어 기존의 전시 문법을 배제하였다. ‘화이트 큐브 공간’에 ‘전시’되어 관객을 맞이하는 형태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총체적 변동을 파편적으로만 증거하고, 성급하게 추상화하며, 지나치게 맥락화함으로써 원치않는 비현실적 낭만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공간과 연출방식에 있어 작금의 현실과 작품의 화두를 관객이 온전히 살필 수 있는 장치와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나는 작품을 통해 함께 화두를 만들어 갈 작가로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캐나다 작가 허만 콜겐Herman Kolgen과 각각 도쿄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일본작가인 쇼헤이 후지모토Shohei Fujimoto와 쿄카KYOKA를 프로젝트에 초대하였다. Audiocinematic Art라는 개념으로 대변되는 허만 콜겐의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공간각성과 영화적 연출은 기술과 예술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요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매우 적합하였다. 한편 듀오 형태로 긴밀하게 협업하며 폭넓은 주제를

팬데믹의 현실과 예술적 실험: 팬데믹 이후의 미디어 아트

다양하고 실험적인 매체작품으로 다루는 두 작가는 후술할 포스트 팬데믹 post-pandemic 현실에 대한 화두를 유연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기획자로서 내가 이들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작금의 팬데믹과 그 이후에 올 포스트 팬데믹 하의 현실이 인간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 미디어 아트는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였다. 아울러 나는 각 작가들이 사용하는 매체와 창작 방식에 맞춘 기술적 영감을 제공할까 동시에, 이들의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위 질문에 대한 각 작가의 서로 다른 해석과 작업을 통한 예술적 목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결과물을 관통하는 화두를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허만 콜겐과의 협업에서 내가 선택한 모티프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구조Genetic Sequence와 전사Transcription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와 정보였다. 다양한 매체가 가진 본질적 특성에 천착해 이를 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에게,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불러온 코로나19라는 실체가 지닌 본질인 바이러스 RNA를 매체로 제안하였다. 마침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유전체 구조를 막 규명한 상태였고, 나는 연구원들과의 협업 하에 RNA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감염과 복제 및 전사과정, 그리고 변이 매커니즘을 집약해 작가에게 전달하였다.

허만 콜겐의 작품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의 한 장면.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 <LifeFORM>에서 허만은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과 ‘변성Metamorphosis’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적 내러티브의 영상과 사운드로 풀어놓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의 RNA 단백질 정보는 영상의 전반부에서 마치 SF영화 속 특수효과와 같이 확장되고 재조합되어 감각적인 체험의 대상으로 바뀐다. 알파벳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유전자 코드는 각각에 대응하는 사운드 값으로 치환되어 마치 유전자 조작을 하듯 작가의 손에 재배열되어 오리지널 사운드로 재탄생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침투하여 숙주의 세포를 재로로 자신의 RNA를 복제하고 증식하는 과정은 직관적으로 추상화된 모션 다이내믹스와 강렬한 사운드로 재현된다. 그리고 마치 서스펜스 영화에서 보이는 반전씬처럼, 영상 후반부에 들어 작가의 언어는 차가운 분석에서 온화한 관조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바이러스의 외형을 본뜬 투명한 막에 둘러싸인 한 남성의 얼굴은 미묘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이어 파도소리가 춤추는 아득한 해변 같은 공간에서 반투명한 세포처럼 표현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작품의 막을 내린다.

허만 콜겐의 작품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의 한 장면.

‘팬데믹이 환기시킨 오래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화두를 지극히 그다음 방식으로 풀어놓았다. 코로나19이전의 흑사병에서도, 대지진에서도 그랬듯 자연에 의해 발생하는 대격변은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상에 대해 깨닫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생물인 바이러스에서부터 전 지구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삼라만상 속 작은 한 부분일 뿐이며, 그 모든 것들과 서로 긴밀히 연결된 존재이다. 전반부의 미시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세밀한 탐구는, 그래서 후반부에 인간의 모습을 거쳐 모든 생명 탄생의 기원이 된 태초의 바다에 대한 형상화로 이어진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작가는 그것을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투영한다. 바이러스가 면역체계에 맞서 끊임없는 RNA의 복제와 변이를 통해 진화해 나아가듯, 인류는 장구한 역사에 걸쳐 팬데믹과 같은 도전에 대응해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적 발전을 통해 스스로의 DNA를 혁신해왔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 속 인간을 유전자 가닥을 둘러싼 세포로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바이러스가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재의 팬데믹은 멈춤없이 이어져온 인류의 변모와 혁신에 대한 또 하나의 예증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작가는 이렇듯 기술적 발견과 예술적 상상력을 자신의 작품속에서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보이는’ 현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그 이면의 진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허만의 작업이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현실의 기저에 대한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탐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쇼헤이와 쿄카의 협업은 보다 다층적이고 입체적 관점에서 이를 조명함으로써 작업적 스펙트럼을 넓힌다. 영상, 레이저빔, 헤이즈, 사운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45분 가량의 실시간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이들은 팬데믹에 반응하는 여러가지 표정의 페르소나를 감각적으로 표출하는 것부터 그 내면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전달한다. 먼저 그 표면을 이루는 주 성분은 ‘트라우마’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대변된다. 이것은 비단 앞서 언급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오늘날 인류 사회가 구축하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시스템과 규범, 상식 등 이른바 ‘Conventions’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한 총체적 반향이다. 쇼헤이는 파열과 불안정, 붕괴를 연상시키는 붉은 패턴과 노란 색채, 검은 공중으로 이를 시각화하였고, 코카는 불안정한 사운드와 중간중간 발생하는 불규칙한 정적을 통해 청각적 임팩트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팬데믹이 야기한 현실을 감각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를 직시하고 보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한편 개인에게 발생한 트라우마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듯, 인류 전체에 발생한 팬데믹이라는 트라우마 역시 어느 한 분야나 집단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작가는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격리와 거리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만큼 중요해진 유대감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한다. 디스플레이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영상과 레이저는 이내 간극이 좁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엮히며, 마침내 수많은 선들로 이어지고 구성된 하나의 형상으로 귀결된다. 동시에 코카가 디자인한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는 가장 청각적 호소력이 높다는 20-60Hz의 주파수를 타고 관객의 귀를 파고든다. 특히 코카는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백색 소음을 사운드의 재료로 활용해 영상의 리듬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감과 동시에 ‘일상의 행복’과 같이 우리 모두가 되찾고자 하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표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의 처음과 끝에 수미상응 형식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작업의 가장 핵심 층위에 위치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편집중적일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된 붉은 선으로 이루어진 비정형의 이미지는 마지막에 이르러 희게 명멸하는 빛으로 환원된다. <TANGIBLE, INTANGIBLE>이라는 작품 제목에도 암시하듯 작가는 팬데믹이 인류사회에 불러온 본질적인 영향을 가장 가시성이 높은 붉은 색과 선의 조형 언어로 응축하여 보여주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진 내재적 한계로 인해 볼 수 없는 영역을 백색의 세계로 형상화하였다. 콜겐과 마찬가지로, 작가는 팬데믹이 가져온 ‘보이는 현실’ 너머로 팬데믹 이후 인간 존재에 대해 다가올 ‘보이지 않는’ 물음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팬데믹에 대해 작가들이 만들어낸 예술적 언어와 몸짓을 담아낼 그릇으로 나는 클럽 공간에서의 원데이 프로그램이라는 포맷을 선택했다.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공간적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현실적 메리트 이외에도, 평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춤, 눈빛과 같은 감각적 언어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기능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버려진 공간이 되어버린 그 장소에서 단 하루동안의 프리미어와 퍼포먼스로 관객에게 작가의 언어를 ‘또다른 감각’으로 온전히 치환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비록 다루는 매체와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두 팀 모두 앞서 내가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같은 시각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팬데믹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정이자 표상일 뿐, 세 명의 작가는 포스트 팬데믹을 넘어 일종의 특이점 상태로 수렴하는 현실관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존재론적 성찰을 드러낸다. 그들의 작품 속 인간은 더 이상 유일한 독립변수이자 사물의 중심축으로 위치하지 않는다. 자연과 사회, 인간과 비인간, 미시와 거시를 나누는 기존의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은 수평적 위치에서 인간과 사물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사물이 가진 행위자Actor로서의 역할과 의미에 주목한다.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반응을 판단하고 해석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인간은 다시 이 돌연변이에 반응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작가들은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를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행위자들과의 근본적 관계재정의로 규정한다.

실제로 신경망 구조에 기반한 차세대 알고리즘과 기존의 0과 1을 넘어서 양자세계로 진입한 컴퓨팅 파워는 이미 인공지능을 인간과 대응하는 완전한 하나의 자아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AI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기술이 아닌 인간과 인류문명에 대해 제 3자의 위치에서 객관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수많은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

AI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행위자이자 자기객관화의 모티베이션이라면, 팬데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생태 다양성 등의 이슈는 어느새 콜겐이 언급한 ‘오래된 미래’가 되었지만, 포스트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인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당위론적인 차원을 넘어 동등한 행위자 관점에서 환경과의 총체적 네트워크와 질서를 구축할 것을 이야기한다. 바이러스에 맞서 백신물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또다른 환경요소와의 네트워크와 질서의 생성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을 매개로 수많은 행위자 사이의 번역과 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상호번역이라는 미디어아트의 속성을 돋보기삼아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화두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콜겐작품의 창작과 연출에 들어간 수많은 유전학과 디지털 AV기술은 바이러스라는 생물의 RNA를 영상의 형태로 그 형질을 변환시킴으로써 그 이면에 내재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쇼헤이와 코카의 작업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각과 환기를 통해 포스트 팬데믹에서의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축의 필요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렇듯 그들의 작품은 그 자체로 이미 수많은 기술과 예술적 요소가 행위자로 참여한 하나의 네트워크 집합체로서 자신을 표본삼아 우리를 새로운 사고의 지평으로 안내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과 살아갈 포스트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다각도의 이슈를 곳곳에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 긴 여정에 앞서 본 프로젝트가 다른 화두와 작가들이 내놓은 해석이 사회 전체의 총체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계기, Apperceptional Glimpse가 되기를 소망한다.

Curatorial Note

Jay Bang
Senior Curator,
Paradise Art Space

Inception: From Anxiety to Creation
UK VIRUS OUTBREAK HAS BEGUN : OFFICIAL

In the evening of 9 March 2020, it was the headline on the Evening Standard tabloid that I picked up at my favourite pub in east London. At the moment, Covid-19 was showing a local surge in East Asia while other nations started to recognise its premonition. Despite there were signs of global spike, ill-founded optimism of regional epidemic such as SARS or MERS prevailed. So I was rather concerned my art projects with overseas artists and organisations might be negatively affected due to my physical base in Asia.

But the virus literally rampaged through the whole planet in a blink under the gloomy notion of pandemic and every single day is flooded by news of incredible fear and frustration. Artists and art platform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Japan who were caring about my safety and the situation in Korea began to fill my mailbox with notices of shutdown and cancellation whilst I myself had the only option of sending a reply with consolation and hope for better future.

So in the midst of the perfect storm of global pandemic, this project rooted its inception as a desperate counteraction to curve the anxiety by creating a meaningful work. When it comes to the landscape triggered by this crisis, the tragic stories of life loss and struggles constitute the centre of Covid-19 hurricane while the economic shock caused by lockdown, social chaos accelerated by fake news spreading through social media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xacerbated by the use of more automobiles and disposables overwhelmingly paralysed the system and the order of our society.

As a media art curator I started this project with the hope of further developing a literacy around the current and upcoming reality by converting the existing trepidation and despair into the fuel for artistic creativity. In the interest of this, some principles were established which are as follows:

First and foremost, the nature of communication lies ‘apperception’ rather than ‘understanding’. Instead of delivering logical framework to educate audience about what’s happening now, I choose to provide a room for resonance between media artworks with experimental approach and audience with their own window of perception. Secondly, I pursued the aesthetic of ‘golden balance’ throughout the production. By exploring a ‘goldilocks zone’ between technology-oriented intellectual excellence and sentiment-gearred approach, I positioned my curatorial goal on the creation of ‘optimal work’ than ‘best work’.

Last but not least, orthodox methodology is strictly ruled out in curatorial presentation because the conventional ‘white cube exhibition’ approach could exceedingly fragmentise, romanticise and overcontextualise the overall fluctuation brought by the pandemic thereby derailing its original purpose. Hence I decided to mak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audience could fully appreciate the messages embedded in the artworks.

In the light of this philosophy, I invited Montreal-based Canadian artist Herman Kolgen and Japanese artists Shohei Fujimoto and KYOKA who are based in Tokyo and Berlin respectively as partners working together to create a meaningful discourse. Herman Kolgen’s sophisticated synesthesia and cinematic narrative represented by the concept of Audiocinematic Art are congenial to my project that requires dialectical tension between technology and art. On the other hand, the artist duo who play with a diverse array of experimental media have bespoke personalities and capabilities that can versatily and delicately present the subject of post-pandemic reality.

Creation: Persona and Metamorphosis

My food for thoughts for them are twofold: ‘What is the message that the

current pandemic and post-pandemic reality will bring to human beings and their society? and ‘What kind of meaning could media art have for it?’. In addition, I offered technological inspiration alongside with the media and creative used by each artist as well as laid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ir works. In doing so, a penetrating message could be discovered whilst respecting the diversity of each artist’s oeuvre.

The motif I select in collaboration with Herman Koglen is scientific data and information on the genetic sequence and transcription of Covid-19. For an artist who peruses the fundamental nature of various media and illustrate them through artworks, I suggested viral RNA as a media so that he could shed a light on the entity that has become the epicentre of the current situations. Fortunately, Korean Institute of Basic Science has identified the genetic architecture of the viru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So in tandem with the researchers, I made a comprehensive profile for the artist which includ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ach RNA protein, the process of infection, replication and transcription and the mutation mechanism.

In his audiovisual work *LifeFORM*, he unfolds his story with cinematic narrative based on the topic of ‘Interconnection’ and ‘Metamorphosis’. During the opening part, the scientific data of RNA protein transform into an object of sensational experience. Its genetic codes described by combinations of alphabets are translated to corresponding sound values and rearranged in the artist’s hands like genetic fabrication in the lab, which give birth to the original sound. The entire transcription and multiplication process in host’s cell are transfigured into visceral motion graphics and dynamic sound that are intuitively reminiscent of sci-fi film scenes. And just like a twist in a suspense movie, the artist’s dialogue shifts from an impersonal analysis to a warmhearted contemplation in the latter part. A young man with a transparent helmet that mimics the appearance of the virus gazes at the front with a subtle mien followed by a surreal seashore on which thousands of people, depicted like translucent cells, pass by in sound of dancing waves.

Through his artwork, the artist unlocks the next phase of ‘old future’ evoked by the pandemic. As the Black Death and great earthquakes in history exemplify, the cataclysms always act a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position of ourselves. Human beings are only a tiny part of universe where all invisible things from microscale like virus to planetary scale like the earth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So the artist’s delicate exploration of the microscopic world in the first half proceeds to the image of the primal sea as the origin of all life in the remaining half. Furthermore, through the prism of analysis on the virus, the artist projects it onto the nature of human and society. Just as a virus has evolved against the immune system through constant replication and mutation of RNA, humanity has innovated its own DNA through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socio-cultural development in response to challenges such as pandemic over a long history. Thus, the artist expresses humans in the work as cells surrounding gene strands thereby revealing the fact that humans and viruses are essentially identical beings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e as well as postulating the current pandemic as another case of human metamorphosis that has continued without stopping. In this way, the artist blurs the boundary between the “invisible” virus and the “visible” reality by making confluence of technical discovery and artistic imagination in his work, which enables us to find the truth behind it.

Whilst Herman’s work unveils fresh insight into the basis of pandemic and post-pandemic reality, the collaboration between Shohei and KYOKA broadens the spectrum of exploration by taking multi-layered approach. In the course of a 45-minute real-time live performance that intermingles video, laser beam, haze and sound, they deliberately shape manifold persona responding to the pandemic as well as deliver philosophically profound messages contained within. First, the outermost surface is represented by a sense of ‘trauma’. This refers to not only the biological and socio-economic damages mentioned above, but also the fundamentally challenged ‘conventions’ such as systems, norms, and common sense that human society has built and taken for

granted. Shohei visualised this with red patterns, yellow colours and black cavities that are associated with rupture, instability and collapse and KYOKA maximises the auditory impact using uncanny sound and irregularly occurring blanks. Through this, the artist sensibly reproduces the reality caused by the pandemic, and at the same time tells us that we must start from facing it and supporting it.

Meanwhile, as individual trauma has multiple factors,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the trauma of pandemic through the efforts of a certain field or group. So the artists embodies the social isolation and distance brought by the pandemic whereas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The image and laser splitting towards both ends of the display soon reverse to narrow the gap, intertwine in various forms and finally constitute single shape consists of numerous lines. At the same time, the energetic sound designed by KYOKA penetrates the audience's ears with a frequency of 20-60Hz which is known as the range with highest acoustic appeal. In particular, KYOKA uses commonly discovered white noise as an ingredient for sound in order to lead the visual rhythm effectively and also represent a solidarity based on the common values we all want to regain such as 'everyday happiness'.

Ultimately, the artists disclose the underlying part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images at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of the performance. The obsessively designed atypical image with countless red lines is reduced to a white flickering light in the end. As the title *TANGIBLE, INTANGIBLE* implies, the artists attempt to showcase the fundamental influence that the pandemic has on human society in distinctive visual language but simultaneously display the uncharted epistemological horizon that originated from the intrinsic limitation of human being. In the same context of Kolgen, they are questioning the invisible reality coming after the pandemic beyond the visible current one.

Implication: Actors and Networks

As a presentational vessel for the artworks, I set up a one-day programme in the club space. Apart from practical advantages such as polished technical settings and befitting space layout, it is deemed to be pertinent to present the premiere and the performance in a venue where many people gather and exchange sensual language such as music, dance and glance but now abandoned due to the pandemic.

A penetrating finding drawn from this project is that both teams basically share the same frame of mind on the two questions I posed earlier, even though the language they produced are different. Regarding the current crisis as a symbolic phenomenon, the three artists formalise an objective and ontological insight on humanity beyond the pandemic. Human beings in their works are no longer the only independent and dominant axis of surroundings. Invalidating the conventional framework that distinguish nature and society, human and non-human and micro and macro, they advocate network-structured ecosystem of humans and others on an equal status and vindicate the role of objects as actors in that structure. Just like an endless actions and counteractions between a virus and immune system, the artists put the upcoming post pandemic future on the road of holistic redefi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ther actors.

In fact, the next generation algorithm armed with neural network structure and era-defining quantum computing power beyond the traditional binary code are already making AI a subject with an independent ego. AI now is coming into stage as an entity that could provide a third-eye view on humanity and opening a new paradigm in human-machine relationship. Whilst AI is an actor generated by human and functions as an internal motivation for introspection, the current pandemic is a kind of provocative signal from the environment around us. When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and ecological diversity have become the 'old future', post pandemic reality requires us to transcend its imperativeness in terms of human's sustainability and build a weltansicht of holistic network among the actors in our nature. For instance, 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due to social distancing means the emergence of new networking with other

environmental factors, which leads to translation and circulation among numerous actors around humans.

Reverberation: A rabbit in a Submarine

With this programme, I endeavoured to cohere the experience of reality into a sequence of carefully curated artistic development to hit both audience's brain and heart so that they could have an apperceptual mindset towards what's coming up next. As art is not merely an object but a communication saying that there is a lot more you haven't heard but worth paying attention. Given the circumstances I delineated so far, I believe that superficial and straightforward story could no longer normalise our complex and unpredictable forces of reality that intrude with greater and greater frequency. In that sense, art could be a communication for something high-contextual, contradictory and non-conventional. In particular, to be ready for the future is not to imagine outlandish care-all technology, but to integrate non-human technologies and human narratives towards unconventional normalisation. I sincerely hope this practice could be a tinsy glimpse of our voyage to new humanity.

Artbook Director's Note

Hailey Song
Curator,
Paradise Art Space

At the end of 2019 when Covid-19 emerged as a global crisis, people experienced a long-forgotten primitive horror in face of an novel virus. Fortunately, the unfamiliar fear seemed to be resolved quickly thanks to the collective memory of overcoming infectious diseases and trust in modern medical technology. However, the future, abruptly accelerated by the prolongation of Covid-19, left an imprint of trauma to humans apart from its biological horror. The future drawn on the foundation of AI and automation is enough to terrorize those who were already fed up with emotional fears due 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isolation caused by prolonged social distancing.

The epidemic, in which humans are inextricably isolated and prophecies about a future where AI cannot be beaten in any productive and economical process has left people helpless and terrified. People envisioned a future wher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ould suffer from disease, lose their jobs due to machine productivity, and scratch upon basic income. On the movie platform, films related to the epidemic, dystopia, and apocalypse top the rankings every day. People's reactions in front of the old future that they had long imagined and feared are diverse. Some try to evade or give up, and others struggle to keep up with the technology, saying they would survive. These unprecedented helpless situations that lead to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 existence and its meaning left a deep trauma in most people's mind. Those who experienced the situation firsthand and those who had to watch them have been also deeply hurt.

However, after such a bumpy times, people began to ask human conditions themselves and to think about mistakes in the past and life in the future in order to overcome trauma and continue life again.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humans so far and think how to live in a new way and connect each other. And most of all, the interesting part is that we are starting to find things that only humans can do. It's as if it's a kind of an exit to relieve trauma.

I was one of them, so to speak. While preparing for this media art program, I thought about things only humans can do. However, the more I thought about it, the more humans were really less 'productive' than AI. Even if the speed of human comprehension catches up with the speed of advancement of technology with numerous efforts, humans cannot be like machines. AI does not suffer from trauma as humans did during the Covid-19 outbreak. On the other hand, humans are so imperfect compared to machines that they are easily tired and sick, and make frequent mistakes.

Nevertheless, the errors that humans make because they are not like AI may actually be unique characteristics of humans. Looking back on human history, many new things have been discovered through numerous mistakes. These were happenings that would not have been made by AI calculations, and things that might have overlooked without being discovered. Human error may be a more attractive possibility that it is possible to imagine and discove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utput by AI's calculation.

Of course, many who have recollected history under the influence of Covid-19 say that imperfect human errors have made the planet sick. It is also said that this has resulted in a catastrophe such as Covid-19 today. Ironically, however, this is also a statement that proves our human influence on the Earth. Inevitably, if humanity's numerous choices are boun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planet and all living things here, including humans, what can move such human minds to make better choices? In most cases, it is probably the same human being who can emotionally influence and persuade humans. Humans may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impact of humanity on the planet and many living things through human possibilities. If so, is there still a role that

only humans can play? Could it be that our mistakes, which we have considered only negative, that imperfection can be a unique ability that only humans h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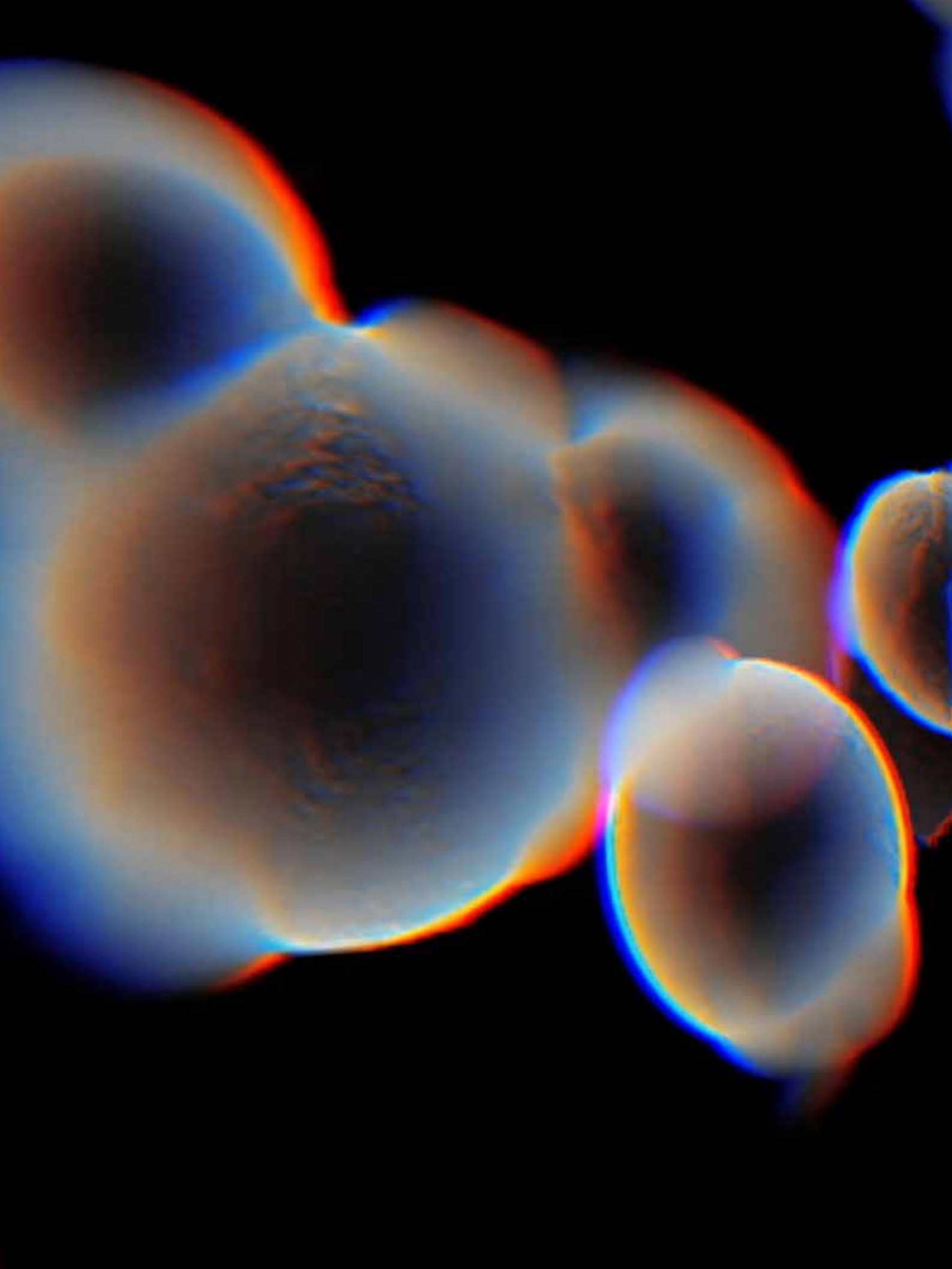
For example, we are often more attracted to photographs with some strangely deviant composition rather than the perfect golden ratio, and we are more likely to remember things like lines shaking anxiously or strangely combined colors derived from the artist's imperfect mental state. When we watch athletics, we admire the player's perfect play, but this impression comes from knowing the player's long trial and error and hardships rather than just because of perfection. Also, sometimes the determination of the player immediately after making a mistake rather than the perfect play impresses.

No matter how advanced AI technology is, no matter how much it develops, it will not be easy for machines to evoke this kind of emotion in humans. AI can take pictures with subtle compositions, but it's not by intuition. 'Human impresses an image a few millimeters from the center.' is a calculated value based on data. How impressed if we see those images? Or, if an athlete robot which has been created for a week plays perfect and wins first place, how will we be impressed there? It could be a little wonder. However, in the near future, not far away, will we be impressed by the robot's perfect dance and painting even when robots are no longer marvelous?

Through this media art program and art book, we tried to convey a message to face trauma and move on again while looking back on this possibility of human beings. Trauma is, in the end, difficult to forget without healing. I hoped that before the neglected wounds could get worse and worse, we could face the trauma properly and discover our own potential in the process so that we could move forward in a new way. We tried to deal with this through multidisciplinary art that considered more special in the current situation. In particular, the thre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deliver a message of thoughts and possibilities on how we can transform and adapt to the sudden future that most of them face it defenselessly, and bond with others again.

And I wanted to explore another possibility in the process of recording the message that the works wanted to convey through this art book. Keeping records in a way that only humans can do: the fear of contact between people which makes even the closest family conversations cautiously; the feeling of isolation that becomes painful as the length of time alone increases; and the weakness of a naked human being felt when anxious about whether the virus is on the clothes you always wear. Recording the multi-layered trauma we have to go through in people or in isolation while the social distancing phase goes back and forth between easing and elevating, and aspirations for metamorphosis and bonds arising out of this trauma. The visualization of human possibilities found in the process in a way that allows us to feel meaningfully because we are humans. While exploring the possibility, I tried to capture the messages that the artists wanted to present in form of an art book.

Therefore the remaining photos except for the cuts taken to show the work's beauty may make viewers feel uncomfortable. However, the subtly deviated and cut composition, blurred focus and the model's inflexible posture are unfamiliar and imperfect, so it may be more intimate with our experiences facing the Covid-19 outbreak. There is a figure of a model who looks isolated and unnatural rather than being safe while alone to avoid contact, the backs of people wearing masks and sitting at a distance to see the work together and between those anxious and incomplete images we are. We may fear, avoid and despair as in the narrative in the work and the narrative in the photograph, but in the end, we will find a way to adapt to change. We will try to find things that are meaningful to us and share them with others. As the three artists did through their works, as I would like to convey through this book. Due to the nature of video and performance works, there is a bit concern about how well these messages can be resonated through photos and texts. But in between these attempts or mistakes such as twists, someone can discover their own meaning and new possibilities I hope.



HERMAN
KOLGEN

LifeFORM



<LifeFORM>은 다양한 존재의 무한한 스펙트럼 사이 인류 위치에 대한 질문을 구현한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전사로부터 모티프를 가져온 이러한 관찰과 연쇄 반응을 기반으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상호 의존성으로 정의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우리가 차지한 "겸손한 자리"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자적 무작위 돌연변이와 시간적 및 지리적 조건에 따라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가 변형과 혁신을 강요받음을 설명한다.

LifeFORM illustrates the question of where human beings occupy caught between the infinitely large and the infinitely small, remain connected to everything. Based on this observation and the chain reactions taking its leitmotif from the viral transcription of COVID-19, the artwork explores the "humble position" we occupy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defined by our interdependence on all forms of life. Thus, subjected to both biological and genetic random mutations, to tempor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ur species has no choice to metamorphose and innovate.

허만 콜겐, <LifeFORM>, 2020, 1 채널 영상, 영상 스틸 이미지
Herman Kolgen, *LifeFORM*, 2020, 1 channel display, Videos still image

허만 콜겐 — 작가 소개

허만 콜겐
캐나다

허만 콜겐은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해 온 저명한 융합예술 아티스트이다. 오디오 시네마 조각가로서 그의 예술적 영감은 설치, 영상 및 시네마 작업, 공연 및 사운드 조각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 사운드와 이미지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는 새로운 기술 언어와 독특한 미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의 교차로에서 끊임없는 주기적 탐구로 작업한다. 그가 추구하는 핵심 개념은 인간의 삶과 주변 환경 사이 상호관계이다. 콜겐은 이로 인한 잔인한 긴장과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중점으로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수상 경력

2010 QWARTZ상, 퍼포먼스 부문, QWARTZ Electronic Music Awards, 파리, 프랑스

2010 Digital Music 부문 특별상, Ars Electronica 2010, 린츠, 호주

2009 QWARTZ상, Best Video, QWARTZ Electronic Music Awards, 파리, 프랑스

2009 QWARTZ상, Best Artwork and Packaging, QWARTZ Electronic Music Awards, 파리, 프랑스

2005 Digital Music 부문 특별상, Ars Electronica 2005, 린츠, 호주

이 외 다수

프로젝트

2017 <EXPANDED TERRITORIES>, Espacio Fundación Telefónica, 리마, 페루

2012 <GROW>, Walt Disney Concert Hall, 캘리포니아, 미국

2011 <Dust>, <Inject>, Transmediale, 베를린, 독일

2006 <FLÛUX:/TERMINAL>, BIENNALE DI VENEZIA, 베니스, 이탈리아

2005 <ETHER>, Centre Georges Pompidu, 파리, 프랑스

주요 작품

2019 RETINA, 메사추세츠 현대미술 박물관, 메사추세츠, 미국

2019 COEXISTENCE, Grand Theatre de Quebec, 퀘벡, 캐나다

2019 SEISMIK, InNKIII, 베이징, 중국

2018 ISOTOPP, MUTEK, 몬트리올, 캐나다

2015 LINK.C, Da Vinci Creative,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2014 IMPAKT, Da Vinci Creative,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2010 Urban Wind, 인천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송도 투모로우시티, 인천, 한국



Herman Kolgen — Artist's Biography

Herman Kolgen
Lives and Works
in Montreal, Canada

Herman Kolgen is an acclaimed multidisciplinary artist with more than three decades of experience in media arts. As an audiocinematic sculptor, his artistic inspiration lies in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sound and image, which lead to the form of installations, video&film works, performances and sound sculptures. He works in a constant cycle of exploration at the crossroads of different media to conjure up a new technical language and a singular aesthetic. The interrelation between human life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takes the central stage of his conceptual pursuits. The resulting brutal tensions as well as the interplay between various elements constitute the epicentre of his practice.

Selected Awards

2010 QWARTZ Award, Performance, QWARTZ Electronic Music Awards, Paris, France

2010 Honorary Mentioned, Digital Music Category, Ars Electronica 2010, Linz, Austria

2009 QWARTZ Award, Best Video, QWARTZ Electronic Music Awards, Paris, France

2009 QWARTZ Award, Best Artwork and Packaging, QWARTZ Electronic Music Awards, Paris, France

2005 Honorary Mentioned, Digital Music Category, Ars Electronica 2005, Linz, Austria

and many more

Selected Projects

2017 EXPANDED TERRITORIES, Espacio Fundación Telefónica, Lima, Peru

2012 GROW, Walt Disney Concert Hall, California, USA

2011 Dust, Inject, Transmediale, Berlin, Germany

2006 FLÛUX:/TERMINAL, BIENNALE DI VENEZIA, Venezia, Italy

2005 ETHER,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France

Selected Works

2019 RETINA, Massachusetts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ssachusetts, USA

2019 COEXISTENCE, Grand Theatre de Quebec, Quebec, Canada

2019 SEISMIK, InNKIII, Beijing, China

2018 ISOTOPP, MUTEK, Montreal, Canada

2015 LINK.C, Da Vinci Creative, Arco art center, Seoul, Korea

2014 IMPAKT, Da Vinci Creative, Arco art center, Seoul, Korea

2010 Urban Wind,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Incheon, Korea

허만 콜겐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전 세계적 팬데믹은 인류 전체를 제3의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작품 ‘LifeFORM’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융합예술 아티스트로서, 예술과 기술 사이 다채로운 융합을 통해 지구상의 수많은 종 중 하나로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초라한 위치’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제 작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허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물질인 제 존재를 디지털 페르소나의 형태로만 작품 속에 드러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술적 표현으로 묘사되었죠. 이는 Audiocinematic art의 투과막을 통한 독특한 미학을 표현하는 저만의 교차 표현 방식입니다.

제 작품 내 바이러스 모양의 헬멧을 쓴 무표정한 남자는 인간의 지속 가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변성 혁신을 보여줍니다. 세계화의 초석에 있는 현 문명사회는 지금 코로나19의 출현과 함께 엄청난 격변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난 수많은 패러다임 전환 사건으로 선행된 일종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는 여전히 겪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와 바이러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탈바꿈의 기풍을 포착하여 작품의 핵심 서사로 풀어냈습니다.

서사 측면에서, 제 작업은 주제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급격히 확장합니다. 현 대유행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거의 모든 시대를 정의하는 사건은 엄청나게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어 대재앙으로 바뀌고 결국 인간 진보 과정의 기반이 되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는 유튜브 플랫폼에 공개됨으로써 제 작품과의 맥락적 연관성을 보일 예정입니다. 제 작품과 다른 작가들의 작업이 물리적 접근 없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 연결되는 점을 통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총체적 인식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erman Kolgen

The ongoing global pandemic triggered by covid-19 bitterly forces the entire human to take a third eye approach – which becomes the motivation of my work *LifeFORM*. As a multidisciplinary artist, I would like to explore the ‘humble position’ we occupy as one of the numerous species on this planet through the kaleidoscopic fusion between art and technology.

My work is designed to blur the boundaries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 myself as a physical and visible substance unveils my presence only in form of digital persona. On the contrary the invisible COVID-19 virus represented by artistic manifestation. This crossroad is where my singular aesthetic is presented via the porous membrane of audiocinematic art.

The poker-faced man in his virus-shaped helmet in my work illustrates the metamorphic innovation that inevitably required for human being’s sustainability. The current civilisation on the cornerstone of globalization is now facing a seismic convulsion with the emergence of COVID-19. Ironically, it is a sort of ‘old future’ that has been preceded by a number of pardign-shifting events throughout our history – which still will be a tough one to undergo. So capturing the ethos of metamorphosis that lies in both human society and the virus, I converted it into the central narrative of my work.

In terms of the narrative, my work shows a spiral magnification of storyline about the theme. Including the current pandemic, almost all of era-defining incidents happened so far showcase the similar pattern: starting from incredibly small initiation that turns into a cataclysm, which eventually lays the foundation of human being’s evolutonal progress.

Last but not least, *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 provides the contextual relevance to my work by releasing it on Youtube platform. Mine and other artists’ works are connected in the same space and time without any physical juxtaposition, which is another exemplification of our transformation in this reality.

I sincerely hope this work could offer a chance to review ourselves in apperceptional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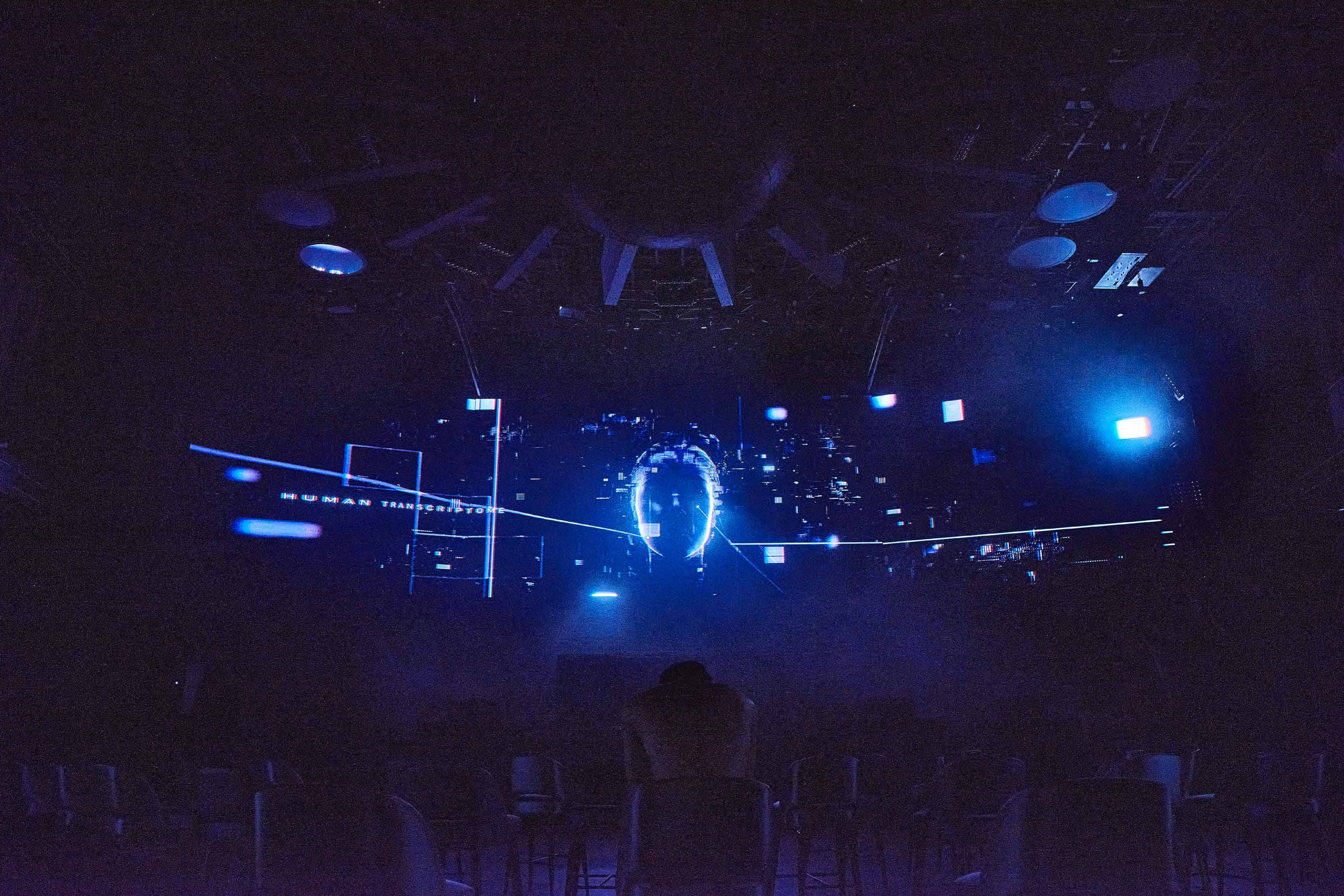
Paradise Art Space is pleased to host the media art program *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 at the standalone mega-scale club CHROMA on 30th October. Alongside with the attendance of RSVP based guests, the programme will go live online on a YouTube <https://youtu.be/FAqMCzkhmtw> so that general audience could appreciate it as well.

Herman Kolgen, a prominent multi-disciplinary artist with more than three decades of experience in media arts, has been working on the crosscutting of different media, technical language and a singular aesthetic. His artistic interest lies in the dynamic interrelation between human life and the surrounding nature, which are deeply acknowledged and appreciated in a number of world class art platforms including Ars Electronica and QUAR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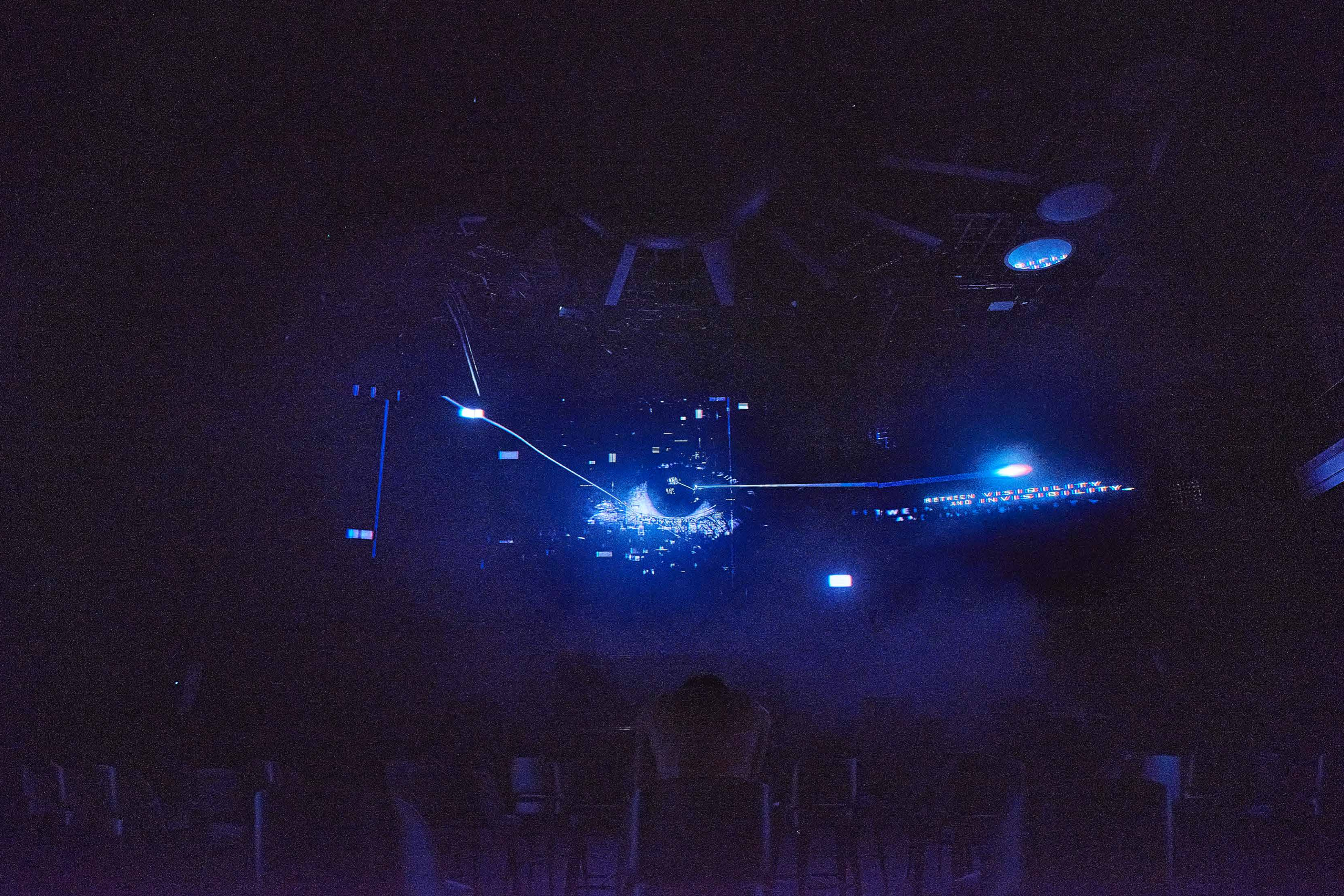
LifeFORM

A person is seen from behind, standing in a dark room. They are looking at a bright blue projection on the wall. The projection contains the text 'Video message' and 'LifeFORM' by Herman Kolgen'. Above the projection, a large, complex structure is visible on the ceiling, possibly a piece of art or a technical installation. The room is dimly lit, with the primary light source being the projection.

Video message
'LifeFORM' by Herman Kol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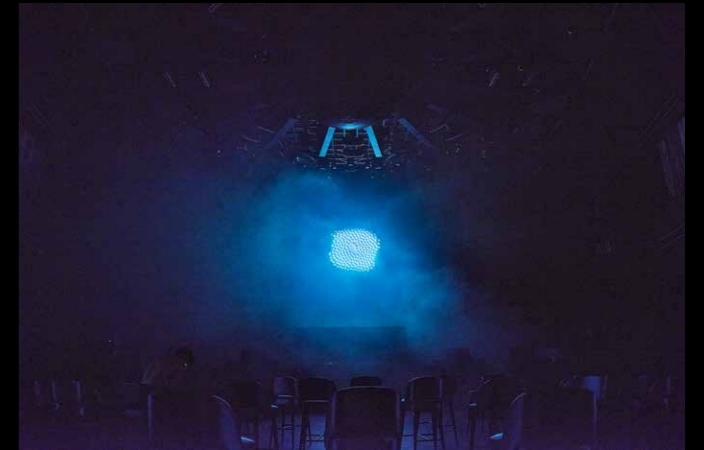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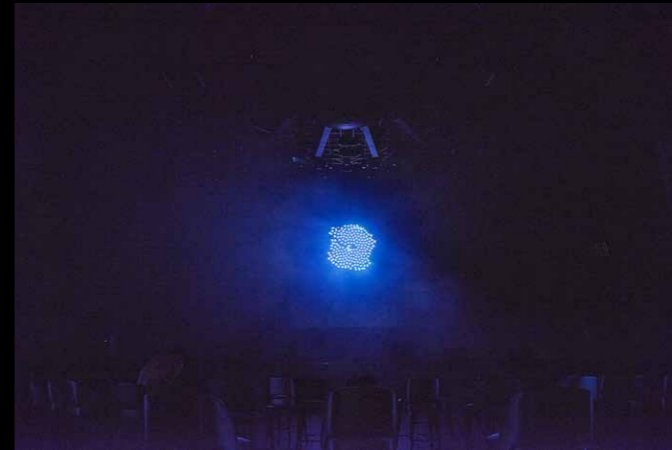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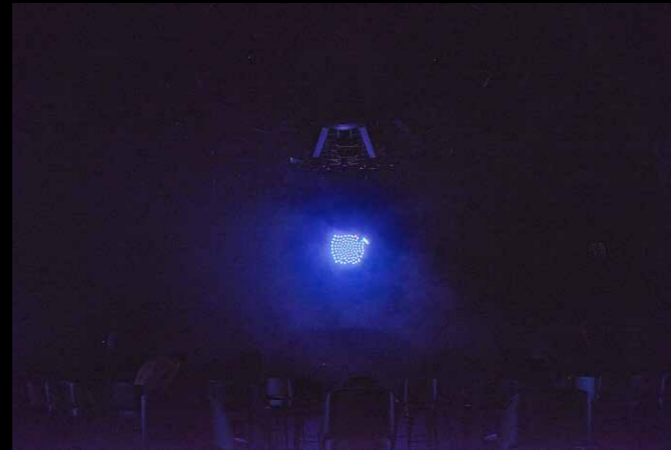
HUMAN TRANSCRIPTOME



BETWEEN VISIBILITY
AND INVISIBILITY



SERIALITY OF CONSC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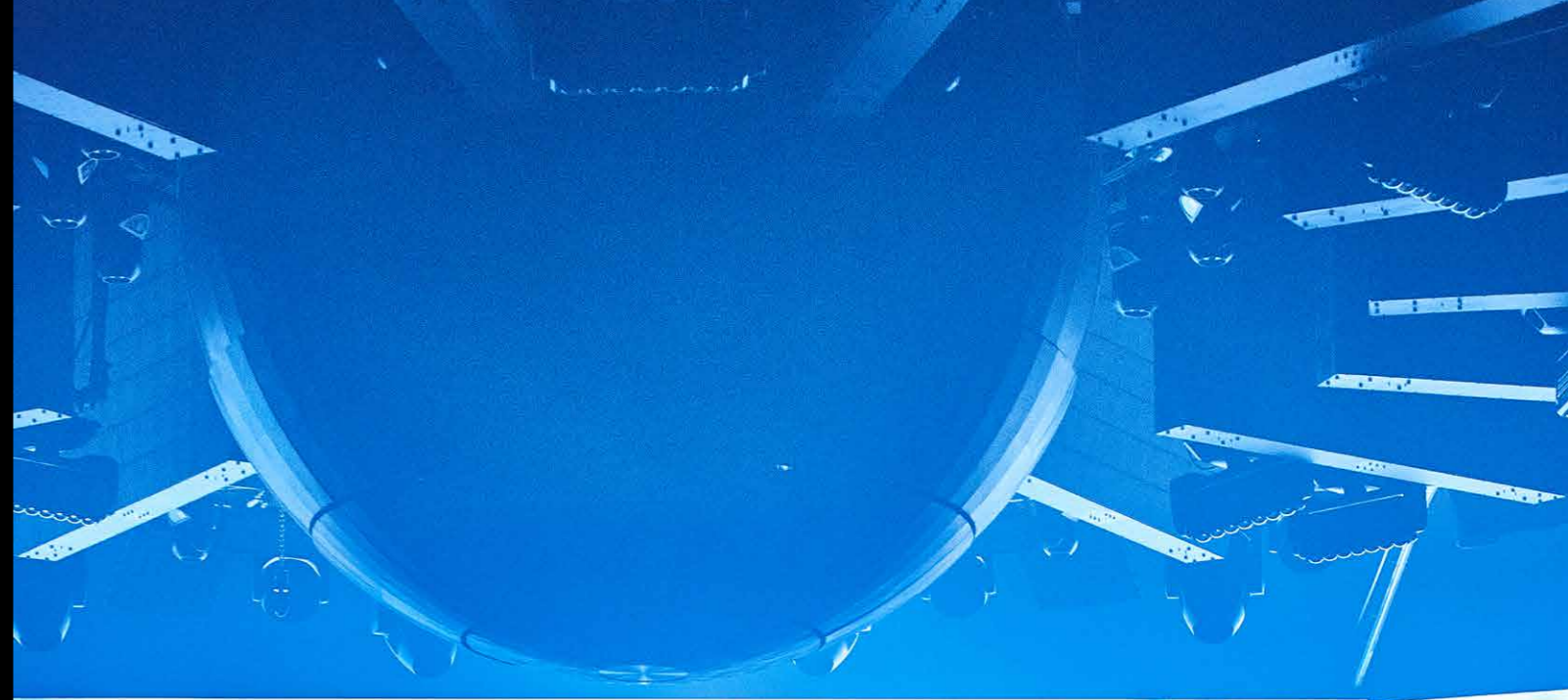








04-17
02-10
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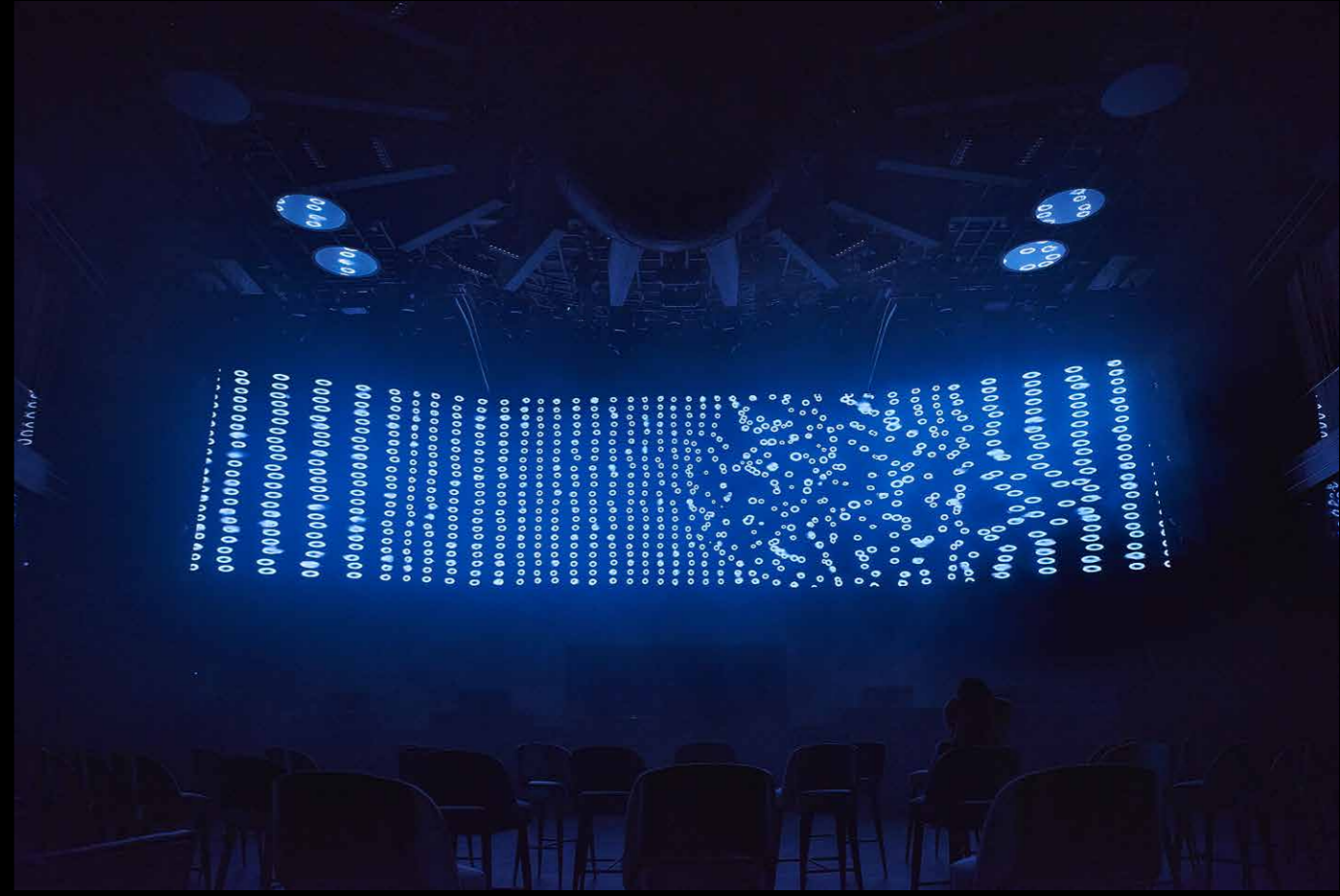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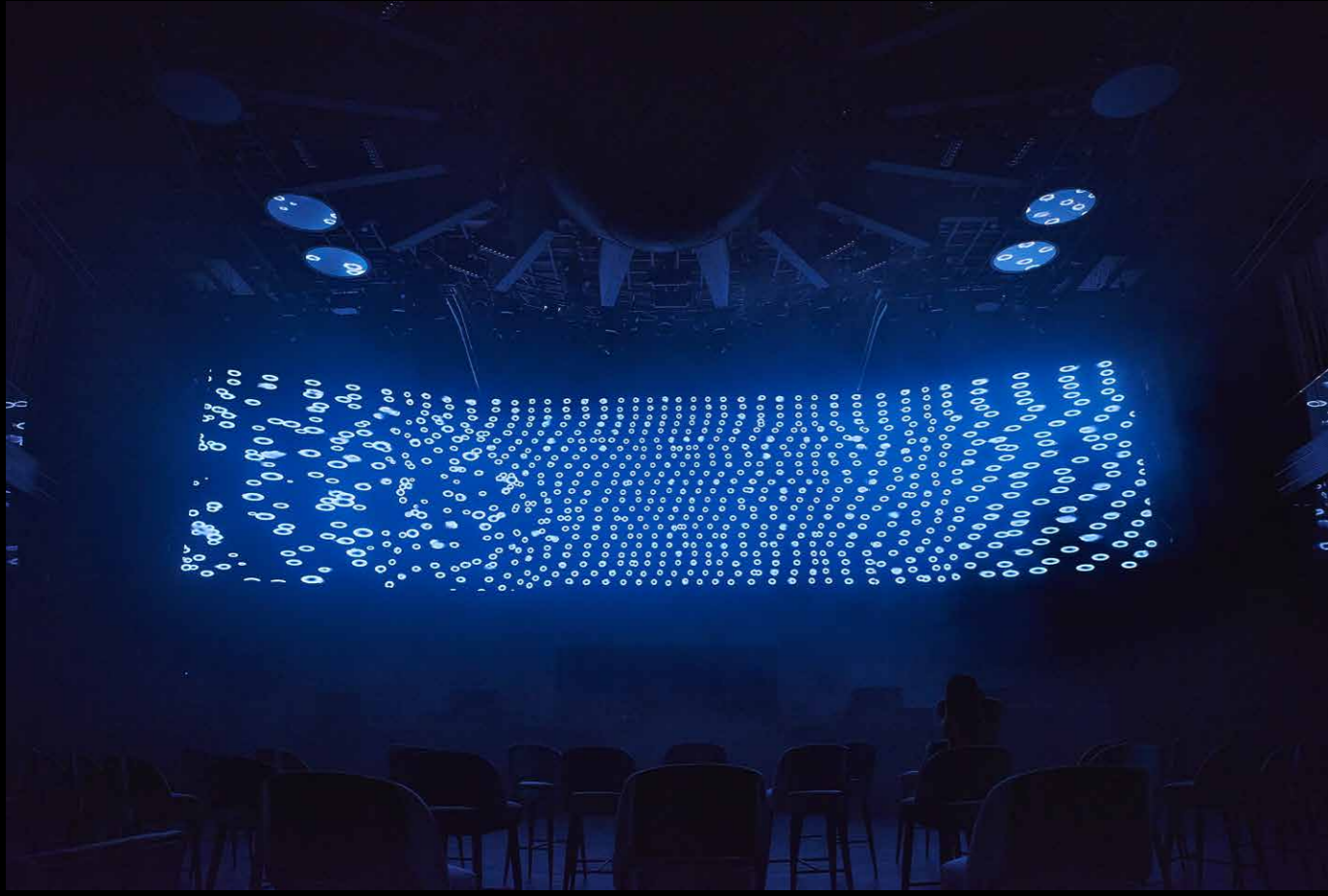
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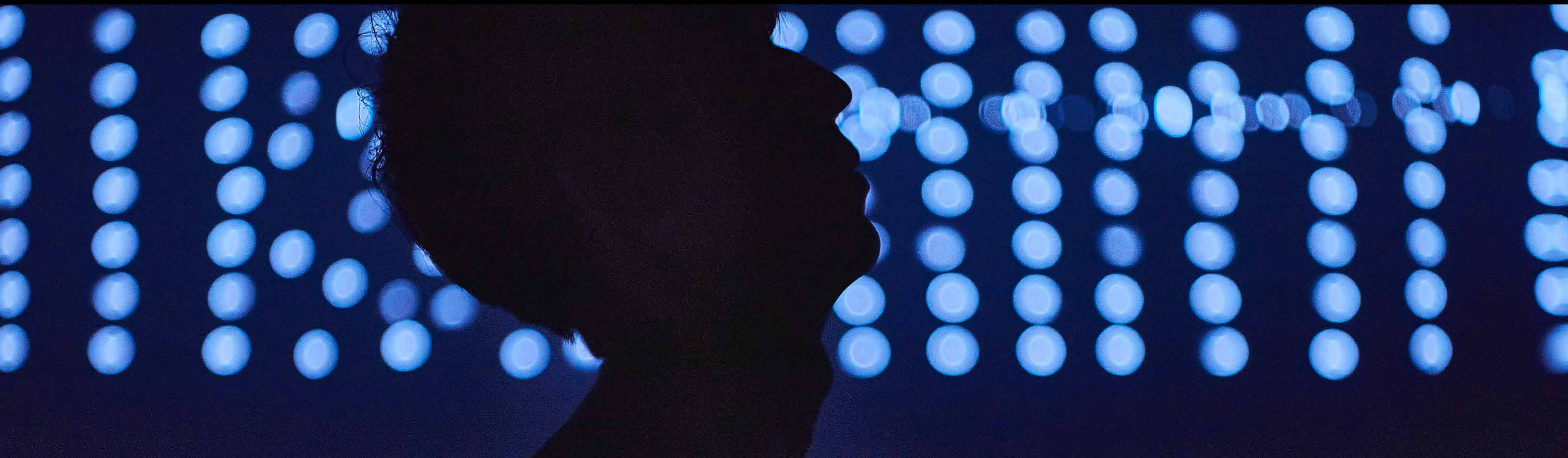
28 X CBE - 547.023
00:16:54:15
0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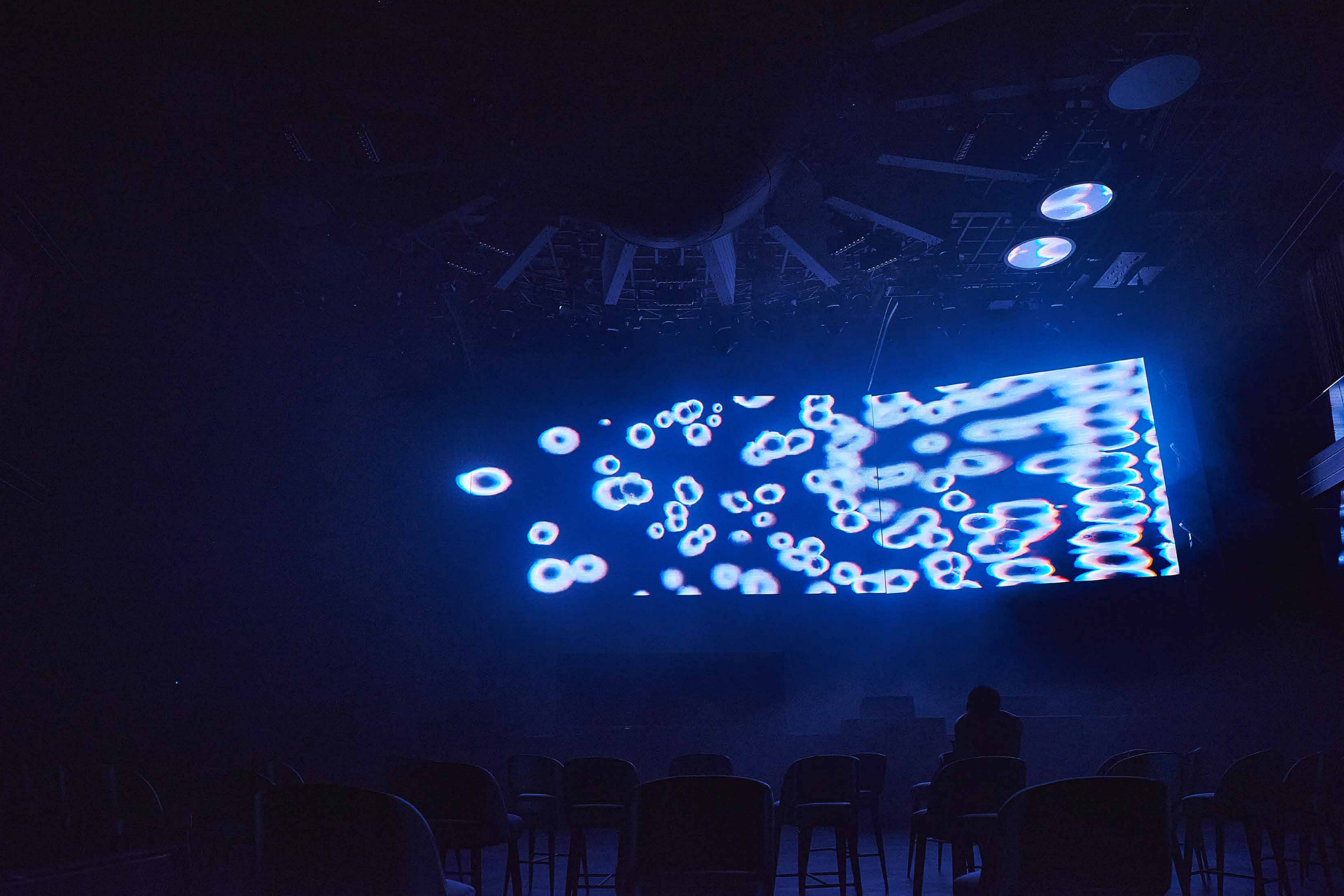
02-11

02-11

28 X CBE - 547.023
00:16:54:15
0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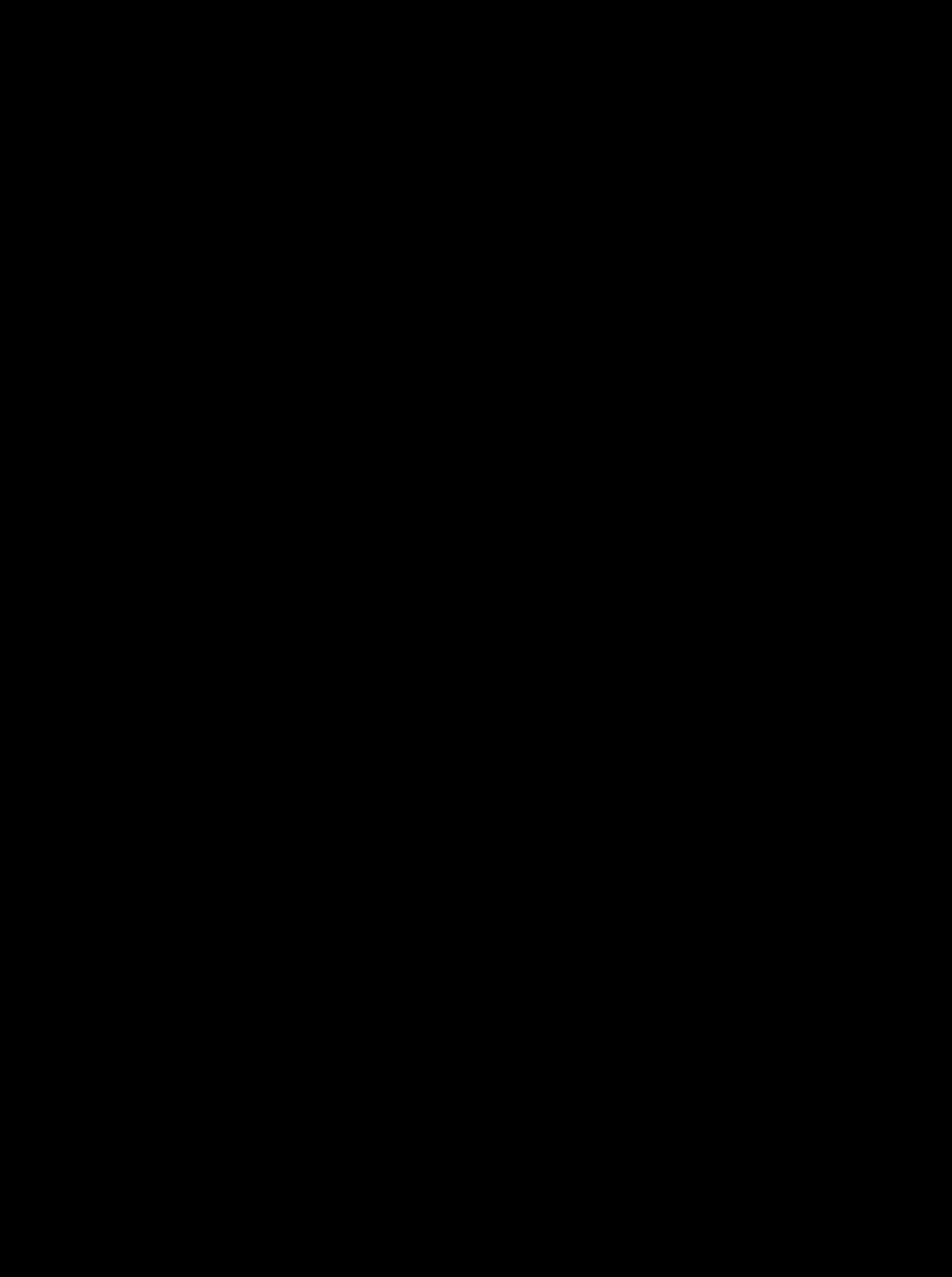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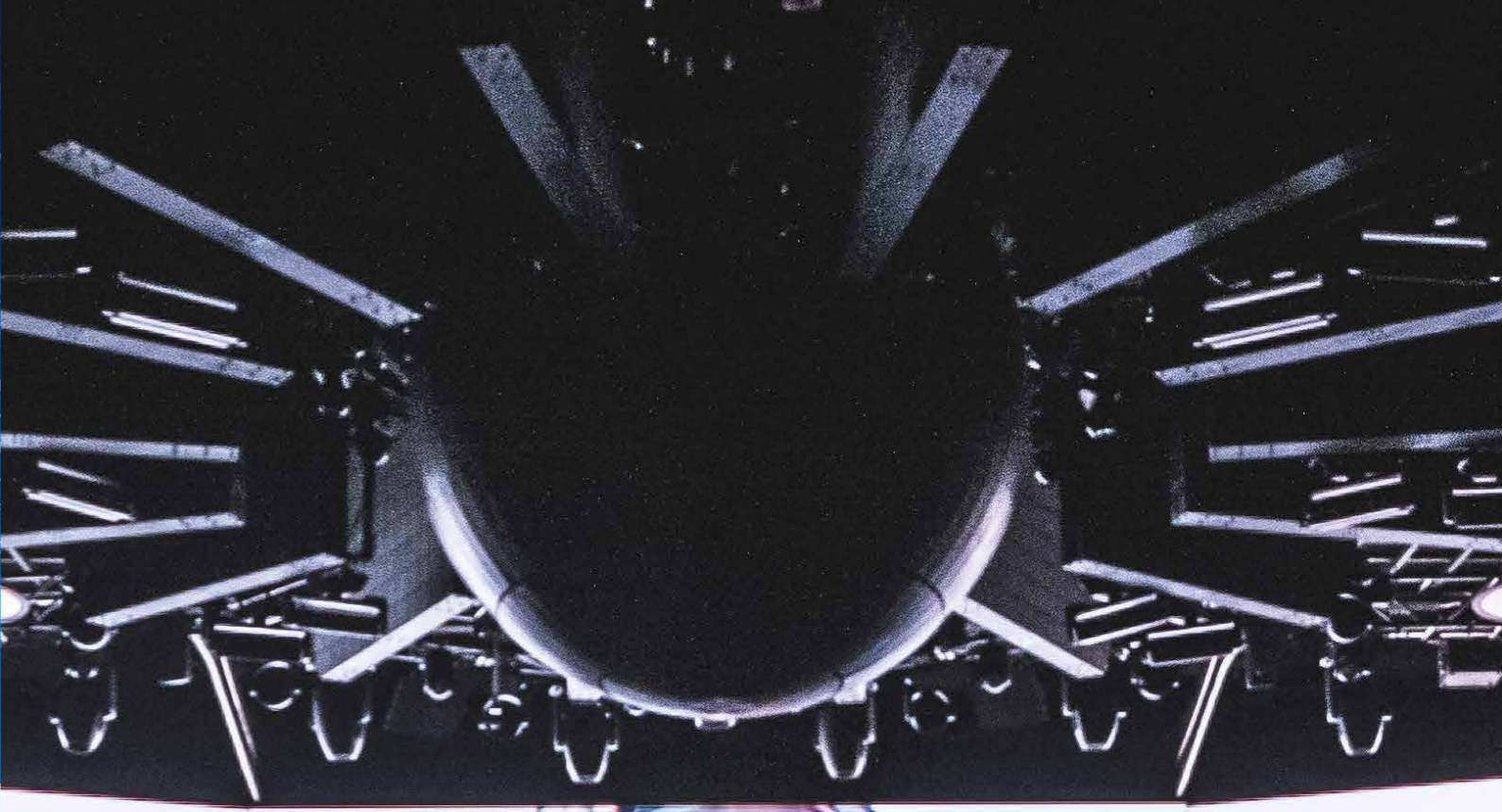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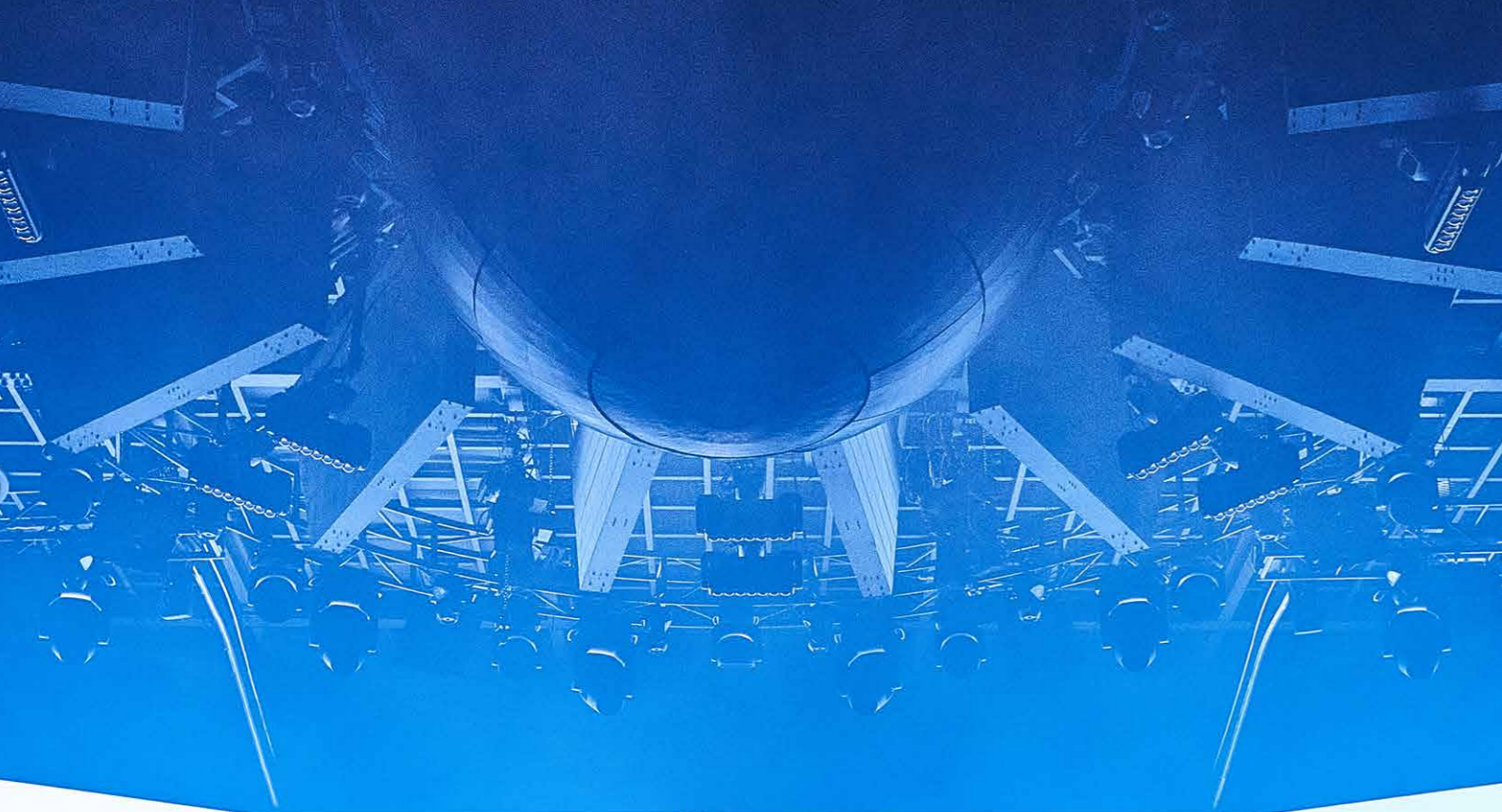


























SHOHEI FUJIMOTO
X KYOKA

*TANGIBLE,
INTANGIBLE*

<TANGIBLE, INTANGIBLE>은 자유롭게 부유하는 붉은 레이저 파동을 활용해 관객에게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 감성을 느끼게 고안되었다. 특히 적색 광선이 만들어내는 신경망적 네트워크와 가상 구조는 현 대유행을 겪는 범국제적 사회의 연대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표상한다. 이번 프로그램 컨셉에 맞춰 처음으로 사용된 노란색은 색다른 물질로써 코로나19의 지속적 변이를 상징한다. 각 관객의 기억, 감정,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도발적 사운드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작가는 내면에 잠재한 새로운 '인식'의 길을 제시한다.

In this performance, the waves of the red laser traveling through the space penetrate and resonate inside audience's mind, which evokes the universal sentiment. The neural-type networks and virtual structure that the red beams create generate the advocative gesture of solidarity of global society undergoing the current pandemic. Also bespoke to the concept of the programme, yellow colour is hi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mputer graphics presented on 3 LED displays to symbolise the mutation of COVID-19 as an unconventional substance. Mixed with provocative sound that enabling audience to connect to their own memories, emotions and consciousness, the performance opens the door of 'apperception' in people's inside.

쇼헤이 후지모토 — 작가 소개

쇼헤이 후지모토
미디어 아티스트
도쿄

쇼헤이 후지모토는 ‘자율’을 컨셉으로 한 작품을 만드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는 작품 자체 또는 작품의 각 요소에 자체 시간 축과 한정된 기능을 부여한다. 작품은 하나의 현상처럼 반복적으로 그 기능을 순환하고 스스로를 유지하게 된다. 즉 작가는 생명 현상을 모방하는 장치와 집합체를 만들어 장치에 포함된 기술로 관객으로 하여금 생명체와 무생물 사이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이를 통해 비록 기술은 실체가 없지만, 행동으로 생명력을 구현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를 선보인다.

주요 전시

2020 INTANGIBLE FORMS, Artechhouse, 뉴욕, 미국

2020 Japan Media Arts Distributed Museum — ETERNAL, Haneda Airport International Terminal — TIAT SKY HALL, 도쿄, 일본

주요 작품

2020 Intangible #form, Artechhouse, 뉴욕, 미국

2019 power of one #surface / test pattern 2, SOFT CENTRE, 시드니, 호주

2019 power of one #point, Hobart, 태즈마니아, 호주

2019 power of one #empty, Arsenal(Centre of Contemporary Arts), Nizhny Novgorod, 러시아

2019 power of one #extrude, Avant Gardner, 뉴욕, 미국

2018 power of one #surface / test pattern 1, Kraftwerk Berlin, 베를린, 독일



Shohei Fujimoto — Artist's Biography

Shohei Fujimoto
Media Artist
Based in Tokyo

Shohei Fujimoto has been creating artwork with the concept of 'autonomy'. An artwork itself or each element of an artwork has its own time axis and limited functions as well. It circulates its function repeatedly like a life phenomenon, and maintains itself. By creating devices and aggregates that imitate life phenomena, the technology contained in the device can highlight the existence between living objects and inanimate objects. Although there is no substance in the body of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ask the viewer about the form of the new life by bringing out life force by behavior.

Selected Exhibitions

2020 INTANGIBLE FORMS, Artechhouse, New York, USA

2020 Japan Media Arts Distributed Museum — ETERNAL, Haneda Airport International Terminal — TIAT SKY HALL, Tokyo, Japan

2019 SOFT CENTRE, Casula Powerhouse Arts Centre, Sydney, Australia

2019 Electric Castle, Banffy Castle, Bontida, Romania

2019 DARK MOFO, Night Mass, Tasmania, Australia

2019 Dance of Urgency, frei_raum Q21, Vienna, Austria

2019 INTERVALS, Arsenal(Centre of Contemporary Arts), Nizhny Novgorod, Russia

2019 BLACK, Avant Gardner, New York, USA

2018 MUTEK Tokyo Edition 3, Miraikan, Tokyo, Japan

2018 Berlin Atonal, Kraftwerk Berlin, Berlin, Germany

Selected Works

2020 Intangible #form, Artechhouse, New York, USA

2019 power of one #surface / test pattern 2, SOFT CENTRE, Sydney, Australia

2019 power of one #point, Hobart, Tasmania, Australia

2019 power of one #empty, Arsenal(Centre of Contemporary Arts), Nizhny Novgorod, Russia

2019 power of one #extrude, Avant Gardner, New York, USA

2018 power of one #surface / test pattern 1, Kraftwerk Berlin, Berlin, Germany

쇼헤이 후지모토

저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시대에 “REAL”과 “REMOTE” 개념을 결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전 세계 활동이 정지되었고, 모든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접촉 없이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 경험의 가치가 크게 바뀐과 동시에 이 전무후무한 시간으로 하여금 물리적 체험이 주는 웰빙과 풍요로움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라이브 공연의 메인 주제는 “그림자”, “상호 작용” 및 “지역 / 영역 / 영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가상에서 누군가의 따스함을 느끼며 서로를 연결하고 개개인, 지역, 지방 그리고 외국 사이의 영역 그리고 거리감에 대해 생각하고 강하게 의식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창출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관점을 시각적 요소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저는 인천에서, 료카가 베를린에서 참가합니다. 저는 물리적 요소로 존재하고 료카는 동일한 공간에서 가상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공연에는 “TANGIBLE, INTANGIBLE”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빛(LED 디스플레이 및 레이저의 시각적 요소)과 베를린에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사운드가 제공됩니다. 이 공연은 라이브 공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 관념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리의 개념을 접목해 관객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인 우리도 같은 목적과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물리적’의 정의와 거리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포착하고 느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3개의 LED 디스플레이와 레이저 모듈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시각적 요소들은 “TANGIBLE and INTANGIBLE”이라는 시각적 개념을 테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적색 파장이 사람이 포착 가능한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멀리 있는 물체에도 파동을 전달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공간을 부유하는 붉은 물결은 여러분 내부를 관통하여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 감각에 닿을 수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노란색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함된 노란색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물질 및 돌연변이를 나타냅니다. 즉, 주요 색상인 빨간색은 안정된 것으로 노란색은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색상은 파장의 구조와 느낌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흰색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행성 동물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모든 야생 동물들은 야간 투시경 카메라를 통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변환되는 것 처럼요. 이처럼 흰색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할 때 사용하는 색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기회를 주신 파라다이스 시티에 감사드립니다.

쇼헤이 후지모토

미디어 아티스트

Shohei Fujimoto

Media Artist

Shohei Fujimoto

I am certain that it is a great opportunity how we can attempt to show live performance combine the notions “REAL” and “REMOTE” at this unique time. In this crisis, the entire world is suspended, and many people of all races have the same purpose, and take action as paying attention to things that can’t see directly. We felt a strong connection with each other without physical experience. The value of physical experience got changed hugely, at the same time, this unique time was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 wellbeing and abundance brought by physical experience.

The main theme of the live performance is “shadow”, “interaction” and “area/field/territory”. Because of COVID-19, we’ve been feeling someone’s warmth from virtual, attempting to generate new viewpoints as doing try and error for connecting each other, thinking and being conscious strongly about the distance and area between each other, district, region and foreign countries. I treat the new viewpoint of humans as visual ingredients.

In this performance, Shohei Fujimoto participates from Incheon, and Kyoka participates from Berlin. Shohei Fujimoto exists as physical ingredients, Kyoka exists as virtual ingredients into the same space. The performance includes the notion “TANGIBLE, INTANGIBLE” and provides physical light (visuals on LED Display and laser), and sound controlled remotely from Berlin. We bet that this performance would be able to provide a different viewpoint of live performance. There is no notion of physical distance. The notion of distance melts, the audiences as well as us will be feeling and capturing a new notion of distance and what is the definition of physical by spending the same purpose and time.

I use 3 LED displays and laser modules for this performance. All visuals are produced along the theme of the visual concept “TANGIBLE and INTANGIBLE”. Using red as the main color. The red wavelength is the color with the longest wavelength of visible light that can be captured by humans. In other words, it’s possible to deliver waves to objects located far away. I think that the waves of the red that travel through space are colors that penetrate inside you and are able to touch the universal sensations that exist deep inside you.

In addition, I use yellow for the first time. The incorporated yellow indicates foreign substances and mutation because of COVID-19. The color yellow is in the middle of the visible color wavelength. In this performance, I use the yellow as mutant, irregularity and fluctuation ingredients, and selected along the main color red. In other words, the main color red is treated as stable, the color yellow is treated as unstable. There is no psychological approach. All colors are selected along the structure of wavelength and my feeling. I have an image that the color white is able to show an invisible thing. In the situation of observing nocturnal animals, all wild animals are converted as white or gray by using night vision cameras. I use the color white as for capturing intangible things.

Finally, I’d like to thank the Paradise City for providing me with this opportunity.

코카 — 작가 소개

코카
사운드 아티스트
베를린

코카는 Carsten Nicolai (일명 Alva Noto), Byeton 그리고 Frank Bretschneider가 설립한 팜, 예술 그리고 과학의 경계를 모두를 포괄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레이블 중 하나인 『raster-noton』명단에 오른 최초의 여성 솔로 아티스트이다. 이 레이블은 Ryuichi Sakamoto, Ryoji Ikeda, Mika Vainio, Taylor Deupree, Atom TM, Alva Noto, Byetone, Frank Bretschneider 등의 음악을 발표했으며 베를린과 도쿄에서 음악가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흥겨운 리듬이지만 실험적으로 깨진 팜 비트를 통한 혼란스럽고 직접적인 음악 접근과 무겁고 거친 사운드로 잘 알려져 있다. 1999년 코카는 신디사이저/컴퓨터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시작하며 작은 신디사이저를 들고 자유 배낭여행을 떠났다. 여행하며 미국,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그 곳 현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경험하면서 성격, 지역성, 음악성에 따른 표현의 차이를 익혔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일렉트릭 음악, 실험적인 테크노 작곡가 및 사운드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수상 경력

2020 Shure24 and Mixcloud Audience Choice
2014 Best act #2 at Plissken Festival, Greece

앨범

2020 Spoiled 130BPM, Bandcamp Exclusive
2019 Link, Trip Recordings
2018 Call Me (Remix for Ellen Allien), Bpitch Control
2016 SH, Raster-Noton
2014 IS(Is Superpowered), Raster-Noton
2012 ISH, Raster-Noton
2010 3 Ufunfunfufu, Onpa
2009 2 Ufunfunfufu, Onpa
2009 Ufunberlinfunfufuliveeatnbi2009, Onpa
2008 Ufunfunfufu, Onpa

주요 상업 작품

2019 – 2020 Orbis (Asia)
2018 ABC Mart × Puma (Japan)
2017 iphone 7 commercial (Global)



KYOKA — Artist's Biography

Kyoka
Sound Artist
Based in Berlin

Kyoka is the first solo female artist on the 『raster-noton』 roster –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usic label which covering the overlapping border areas of pop, art and science, founder of the label are Carsten Nicolai (a.k.a Alva Noto), Byeton and Frank Bretschneider. This label released music of Ryuichi Sakamoto, Ryoji Ikeda, Mika Vainio, Taylor Deupree, Atom TM, Alva Noto, Byetone, Frank Bretschneider etc– and works as a musician/composer in Berlin and Tokyo. She is known for her chaotic and direct musical approach and a heavy-rough sound, resulting in a broken pop-beat with experimental yet danceable rhythms. In 1999 she started to explore the potential of synthesizers/computers and began a trip as a backpacker with her small synthesizer at will. USA, Spain, France, UK etc. There, she experienced to improvise music with some local underground artists and learned difference in expression by personality, regionality and the musicality. Now she is globally one of the representative electric music, experimental techno composer and sound-artist.

Selected Awards

2020 Shure24 and Mixcloud Audience Choice
2014 Best act #2 at Plissken Festival, Greece

Release

2020 Spoiled 130BPM, Bandcamp Exclusive
2019 Link, Trip Recordings
2018 Call Me (Remix for Ellen Allien), Bpitch Control
2016 SH, Raster-Noton
2014 IS(Is Superpowered), Raster-Noton
2012 ISH, Raster-Noton
2010 3 Ufunfunfufu, Onpa
2009 2 Ufunfunfufu, Onpa
2009 Ufunberlinfunfufuliveeatnbi2009, Onpa
2008 Ufunfunfufu, Onpa

Selected Commercial Works

2019 – 2020 Orbis (Asia)
2018 ABC Mart × Puma (Japan)
2017 iphone 7 commercial (Global)

쿄카
사운드 아티스트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는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거리감 속에 갑자기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고 과정, 행동, 장치 및 경험을 더 잘 수용하도록 변화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리감 변화에는 단점도 있지만 새로운 가치, 친밀감 그리고 부유함 등등의 일부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 사운드 아티스트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생겨난 “거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즐기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운드는 증가된 거리도 가장 원활하게 이동하는 넓고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20-63Hz 사이 음파들로 선택되었으며, 균형을 위해 기본으로 사용되는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백색 소음 형태입니다.

공간을 왜곡하는 감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변화는 관중의 얼굴 / 신체적 표현 실시간 관찰에 의해 상호작용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중은 베를린에서 전송된 전기 신호였던 소리를 “듣거나 느끼게” 될 것이고, 이 “경험”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그들의 뇌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 전기 신호를 여러분의 기억, 감정 및 의식 등에 성공적으로 연결 가능하게 되면, 체계가 어떻게 다음 감각을 해석하게 할지는 청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동으로 변환시키기, 과거 기억 향유, 또는 미래기억과 연결 그리고 기억 재작성 등과 같은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 곳으로부터 전송된 음악이라는 전기 신호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내적 과정/ 경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이 여러분의 즐거운 미래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yoka
Sound Artist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we are suddenly living at a different distance which we haven’t experienced in the past. As a result, I believe we might be changing ourselves into people who are more receptive to different thought processes, behaviors, devices and experiences than ever before. There are disadvantages to this change in distance, of course, but there are also certain new advantages (new values, new closeness, and new richness etc.).

In order to explore how we can enjoy and accept the “distance” created by this new sense of value we are going to have this performance. I have taken the perspective of the sound artist for this performance.

The sounds chosen are those which will travel the increased distance best the sound waves between 20-63Hz which are large and one of the most energy intensive, and the type of white noise that covers every range are used as the basis for the balance.

Phase changes to strengthen the sensation of interrupting space are interactively generated by observing the facial/physical expressions of the audience in real time. In this way, you will “hear/feel” the sound which used to be electric signals sent from Berlin, and this “experience” will be again converted into electric signals that will be transported to your brain. And when you are able to successfully connect that electrical signal to your memories, emotions and consciousness etc, it will be up to you how you let your system interpret the sensation next. You might have many options, for example: You can convert them into action, enjoy the past memory, connect it to future memories, use it to rewrite memories etc. I invite you to play with this mind process/experience of chemical reactions triggered by the electric signal named music sent from far. And I wish this performance will be translated into your fun future.

Thank you so much to everyone who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do this performance.

Shohei Fujimoto has explored the delicacy of life and visualise its mimesis through media art. In the performance, he presents an unfamiliar sense of space by creating virtual structure made of numerous red laser beams while Kyoka participates remotely and plays a sound that provokes and resonates with people's memories, emotions and consciousness.





